

현 의료계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일부 치과대학 학생들의 의식조사

김윤정** · 유미선* · 김수남**

1. 서론

현재 의료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윤리적 행태가 지상이나 마스크를 통하여 알려지고, 일부 의료인의 비리가 널리 알려지므로 국민으로부터 윤리적인 의혹을 사고 있는 형편이다. 의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환자의 권리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서 의료윤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미묘한 문제와 얽혀 있다. 또한, 의료의 비인간화나 상업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낙태, 안락사, 동성애 인정, 인간복제 등에 관련된 사회문제를 비롯해 의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의료윤리란 의료행위를 하는데 요구되는 도덕적 규범과 제반 의무사항이다. 의료윤리는 환자와 의사와의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사랑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¹⁾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사회의 부조리가 만연한 가운데 진료현장에서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형편이다. 우리나라 치과의사들의 대부분이 의료윤리를 정규교육으로 받은 적이 없으며 치과의사가 된 뒤에도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치과교육에 있어서 윤리학의 필요성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치과대학 및 치과위생사 과정의 80%정도가 윤리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지만 윤리교육의 체계에는 문제점이 많다. 이는 교육과정의 법적인 기준에 의하여 움직여지고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인식 제고의 실질적인 면이 부족할 수 있다고 하겠다. 최근 20여년 사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 건강관리와 관련된 윤리학은 의과대학 및 간호대학 그리고 보건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에서 기본과목이 되었다.²⁾³⁾⁴⁾ 1980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의료윤리학에 대한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윤리학 교육내용도 많이 발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치과대학의 윤리교육에 대하여 점검해 보는 계기를 마련코자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에서 치과대학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의료계의 윤리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해당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윤리교육의 기초로 이용하고자 시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치학교실

**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사회치과학교실

1) 김일수, 김철환, 서홍관. 개원 가정의의 의료윤리 문제. 가정의 2000 ; 21(12) : 1568-1580

2) Culver C.M., Clouser K.D., Gert B. et al.. Basic curricular goals in medical ethic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1985 ; 312(4) : 253-256

3) Pellegrino E.D., Siegler M., Singer P.A.. Teaching clinical ethics. Journal of Clinical Ethics. 1990 ; 1 : 175-180

4) Mitchell K.R., Lovat T.J., Myser C.M.. Teaching bioethics to medical student; the Newcastle experience. Medical Education. 1992 ; 26 : 290-300

도하였다.

2. 조사방법

2.1. 자료수집 방법

본 조사는 W대학교 치과대학 졸업반 103명, 신입생 8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한 후에 이에 응답한 128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2.2. 설문도구

현 의료계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치과대학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모두 11문항을 질문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기존 문헌⁵⁾⁶⁾을 참조하여 만들었으며, 치과대학생용으로 약간 수정하여 조사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인적 특성, 심각한 의료윤리문제와 낙태, 안락사 등의 기타 윤리문제 등으로 구성되었다.

2.3. 분석방법

모든 문항에 대해 SPSS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다.

3. 조사 결과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학년분포를 보면 졸업반이 47.7%, 신입생이 52.3%이었고, 성별분포는 남자가 72.7%, 여자가 27.3%로 남자가 많았다. 거주지는 중소도시가 64.8%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종교는 무교가 39.1%, 기독교가 24.2%, 불교가 11.7%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5) 정유석, 박일환, 박석진.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의식조사. 의료·윤리·교육 2000 ; 3(1) : 99-111

6) 서홍관. 일차의료에서 만나는 의료윤리 문제. 가정의 1999 ; 20(5) : 575-578

	Item	N(%)
Sex	male	93(72.7)
	female	35(27.3)
Location	city	26(20.3)
	town	83(64.8)
	others	19(14.9)
Grade	senior	61(47.7)
	freshman	67(52.3)
Religion	Christian	31(24.2)
	Buddhist	15(11.7)
	Absence	50(39.1)
	Others	32(25.0)
Total		128(100.0)

3.2. 심각한 의료윤리문제

심각한 의료윤리문제 7가지(영리를 위한 진료행위조절, 광고문제, 치료거부, 의료형평성의 문제, 환자에 대한 불친절, 관리가 불충분한 임상시험, 환자의 비밀보장소홀)를 제시하였다. 이 중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을 3가지씩 복수로 적도록 한 문항의 분석 결과 치과대학 학생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의료윤리문제는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조절’이 29.1%, ‘의료형평성의 문제’ 24.8%로 타 문제들에 비해 매우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환자에 대한 불친절’ 12.8%, ‘치료거부’ 12.2%, ‘관리가 불충분한 임상시험’ 10.7%이었고, ‘광고문제’ 6.4%, ‘환자의 비밀보장소홀’ 4.0% 등은 그다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Response to the serious ethical issues.

	N	%
Bribery	95	29.1
Advertisement	21	6.4
Treatment refusal	40	12.2
Equality	81	24.8
Unkindness for patient	42	12.8
New drug trials	35	10.7
Don't keep a secret for patient	13	4.0

3.3. 기타 윤리문제에 대한 인식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윤리문제에 대해 의견을 물었을 때, ‘낙태’에 대해서는 ‘찬성’이 65.6%, ‘반대’가 34.4%로 찬성하는 답변이 많았다. ‘안락사’, ‘뇌사인정’, ‘시험관아기시술’에 대한 질문에는 각각 88.8%, 90.2%, 95.2%로 대부분이 찬성하였다. ‘동성애인정’에 대해서는 ‘찬성’이 56.8%, ‘반대’가 43.2%로 엇비슷하였다. ‘성전환수술’은 ‘찬성’이 62.9%, ‘반대’가 37.1%로 찬성이 많았고, ‘인간복제’의 허용정도에 대해서는 반대(80.0%)하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Table 3).

Table 3. The respondents' positivity on the ethical issues.

	agree(%)	disagree(%)	total(%)
Artificial abortion	80(65.6)	42(34.4)	122(100.0)
Euthanasia	111(88.8)	14(7.2)	125(100.0)
Brain death	111(90.2)	12(9.8)	123(100.0)
In vitro fertilization	118(95.2)	6(4.8)	124(100.0)
Homosexuality	71(56.8)	54(43.2)	125(100.0)
Sex change	78(62.9)	46(37.1)	124(100.0)
Human cloning	25(20.0)	100(80.0)	125(100.0)

3.4. 기타 윤리문제 인식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견해 차이

3.4.1. 학년에 따른 기타 윤리문제에 대한 응답의 차이 비교

기타 윤리문제(낙태, 안락사, 뇌사인정, 시험관아기기술, 동성애인정, 성전환수술, 인간복제)에 대해서 성별에 따른 비교분석을 한 결과, 졸업반 학생과 신입생의 응답의 차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4).

Table 4. Opinion about telling the other ethical issues by grade.

	senior		freshman		p value
	agree(%)	disagree(%)	agree(%)	disagree(%)	
Artificial abortion	36(62.1)	22(37.9)	44(68.8)	20(31.2)	0.453
Euthanasia	50(86.2)	8(13.8)	61(91.0)	6(9.0)	0.411
Brain death	54(93.1)	4(6.9)	57(87.7)	8(12.3)	0.373
In vitro fertilization	56(94.9)	3(5.1)	62(95.4)	3(4.6)	1.000
Homosexuality	33(56.9)	25(43.1)	38(56.7)	29(43.3)	1.000
Sex change	39(67.2)	19(32.8)	39(59.1)	27(40.9)	0.360
Human cloning	13(22.0)	46(78.0)	12(18.2)	54(81.8)	0.657

3.4.3. '성전환수술'에 대한 종교에 따른 응답의 차이 비교

치과대학 학생들이 '성전환수술'에 대해 종교에 따른 견해차이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각 종교 간에 차이가 있었고(p=0.007)(Table 5), 기독교에서는 '반대'가 63.3%인 반면, 불교, 무교, 기타종교에서는 각각 73.3%, 73.5%, 66.7%로 찬성이 훨씬 우세하였다.

Table 5. Response to sex change.

	agree(%)	disagree(%)	total(%)	p value
Christian	11(36.7)	19(63.3)	30(100.0)	0.007
Buddhist	11(73.3)	4(26.7)	15(100.0)	
Absence	36(73.5)	13(26.5)	49(100.0)	
Others	20(66.7)	10(33.3)	30(100.0)	

4. 고찰

본 조사는 일부 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의료윤리에 해당하는 문제들만을 제시한 상태에서 그들의 주관적인 견해를 물어보는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업시간에 설문지를 배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7.7%의 낮은 회수율은 윤리적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배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치과의사들이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윤리문제로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조절', '광고문제', '치료거부', '의료형평성의 문제', '환자에 대한 불친절', '관리가 불충분한 임상시험', '환자의 비밀보장소홀' 등과 관련된 문제라고 판단하고 치과대학 학생들의 의식조사를 하였다.

이에 치과대학 학생들이 인식한 심각한 의료윤리문제는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조절', '의료형평성의 문제', '환자에 대한 불친절' 등의 순으로, 의사들⁷⁾과 간호사들⁸⁾의 인식조사에서와 비슷한 맥락이었다. 정유석 등⁹⁾의 연구에서는 '과잉진료', '치료거부', '의료형평성'의 순으로 약간의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의료와 관련된 문제인 '낙태', '안락사', '뇌사', '시험관아기시술', '동성애', '성전환수술', '인간복제'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인간복제'를 제외한 '낙태', '안락사', '뇌사', '시험관아기시술', '동성애', '성전환수술'문제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한편, '낙태'에 대한 일반적인 윤리적 거부감은, 산모의 건강에 대한 극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적 유산(Therapeutic abortion)이 아니라 미혼녀의 임신이나 가난 그리고 기존 자녀가 많다거나 남존여비 사상에 의한 여아낙태 같은 편의적 유산(Convenient abortion)으로 인한 것이다. Fandes A 등에 의하면 개발도상국 특히 Africa와 Latin America에서는 모성사망을 원인의 반 이상이 불법낙태 때문이라고 하였다.¹⁰⁾ 치과대학 학생들의 응답분석 결과, '낙태' 문제에 대한 찬성이 65.6%로 일반 가정의¹¹⁾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결과인 57.5%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안락사' 문제가 불법인데도 찬성률이 김미주¹²⁾의 조사결과에서 간호사들은 65.6%, 본 조사에서는 86.8%로 치과대학 학생들이 간호사들에 비해 이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안락사' 문제에 대해서 Lowe 등¹³⁾은 환자에게 치료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의식이 있는 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는 것 같은 죽을 권리는 아니라고 한 바 있다.

최근 시험관 아기 시술은 많이 보편화되는 추세이나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점이 있는

7) 구영모, 권복규, 김옥주 등.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의사들의 의식조사. 의료·윤리·교육 1999 ; 2(1) : 43-61

8) 김미주. 현 의료계의 윤리적 문제에 대한 간호사들의 인식조사. 의료·윤리·교육 2001 ; 4(1) : 15-30

9) 정유석, 박일환, 박석건. 국내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료윤리 문제에 대한 의식조사. 의료·윤리·교육 2000; 3(1) : 99-111

10) Fandes A, Hardy E. Consequences for women's health and the health care system. Int J Gynecol Obstet. Ireland 1997 Jul ; 58(1) : 77-83

11) 김일수, 김철환, 서홍관. 개원 가정의의 의료윤리 문제. 가정의 2000 ; 21(12) : 1568-1580

12) 김미주. 위의 글.

13) Lowe S.L.. The right to refuse treatment is not a right to be killed. J Med Ethics. England 1997 Jun ; 23(3) : 154-158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치과대학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92.2%) 이 문제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보고¹⁴⁾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전환수술’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에 따라서 응답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7$). 종교가 없는 학생들과 불교인 학생들의 대부분이 찬성하였고, 기독교인 학생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성별이나 거주지, 학년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정권 등¹⁵⁾은 의과대학생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료윤리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의료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실제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강의, 사례에 대한 토의, 역할수행, 소그룹 토의 등을 교육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¹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 졸업반이나 신입생이나 의료윤리에 대한 의식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현 치과대학에서 미래의 치과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한 윤리교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일부의 치과대학 학생들의 윤리의식에 대한 조사연구로 우리나라 치과대학 학생들의 윤리적 문제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이러한 시도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상당히 기여될 것으로 생각되며, 후속연구에서는 치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윤리적 상황을 살펴보고 치과 의료인이 가져야 할 윤리의식과 기본적인 사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부 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의식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의료윤리 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대학 학생들이 느끼는 심각한 의료윤리문제는 ‘영리를 위한 진료행위조절’, ‘의료형평성의 문제’, ‘환자에 대한 불친절’의 순이었다.

둘째, ‘낙태’, ‘안락사’, ‘뇌사인정’, ‘시험관아기시술’, ‘성전환수술’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견해가 더 많았고, ‘인간복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견해가 더 많았다.

셋째, 기타 윤리문제에 대해 치과대학에서 장기간 교육받은 졸업반 학생과 치과대학에 갓 입학한 신입생과의 응답의 차이는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윤리적인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치과대학 교육에서 생명과 의료전반에 관한 윤리의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색인어 : 의료윤리·치과대학생의 의식

14) 김미주. 위의 글.

15) 이정권, 이수영, 함상근. 의과대학 학생과 전공의의 의료윤리에 대한 이해도. 가정의 1994 ; 15(11) : 1016

16) 이주열. 보건분야에서의 윤리교육.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998 ; 15(1) : 67-77

=ABSTRACT=

A Survey of Korean Students' perception of the
School of Dentistry toward the Ethical Problems

Kim Yun-Jeong**, Yu Mi-Sun*, Kim Soo-Nam** 17)

Ethical problems are receiving a great deal of attention recently in medical community. In the school of dental community, it has been concerned with these things.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out of the school of dentistry Korean students' perceptions toward the ethical problems. Data was collected by using questionnaire. We received 128 cases that senior was 61 and freshman was 67.

This collected data showed that school of dentistry students regard bribery as the most common ethical problem. Other frequently mentioned problems are treatment equality, refusal and unkindness of patient. Also, they agreed to artificial abortion in 65.6%, euthanasia in 88.8%, brain death in 90.2%, in vitro fertilization in 95.2%, and homosexuality in 56.8%. But, They disagreed to human duplication in 80.0%. School of dentistry students' perceptions was not statistically by grade. It means that school of dentistry education is far from ethics education. Therefore, school of dentistry curriculum ought to occupy a greater portion of the ethical curriculum for students. Also, Many researchers should carry out that these issues needs to be done in a more comprehensive way.

Key Words : Ethical problem, Korean students' perception of School of dentistry

* *Department of Preventive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Wonkwang University*

** *Department of Social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Wonkwang University*